

팬데믹 시대, 연대·회복 메시지 전한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발표

전 세계 작가 69명 실험적 커미션 신작 41점 선봬 샤머니즘·치유·억압된 역사 등 동시대 현안 시각화

내년 2월 열리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에는 전 세계 69명의 작가가 참여해 실험적인 커미션 신작 41점을 선보이게 된다. 러시아, 필리핀, 태국, 모로코, 세네갈, 레바논, 영국, 미국, 칠레, 브라질, 시에라리온, 뉴질랜드 등 지구 곳곳의 포용적인 예술적 실천작가들이 두루 포진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17일 밤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73일간 개최되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공동 예술감독인 데프네 아야스와 나타샤 진발라도 각각 베를린과 콜롬보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은 전시와 '라이브 오르간', 온라인 저널, 출판물 등으로 구성된다.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현대미술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과 실험정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팬데믹 시대, 연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이번 비엔날레는 그동안 서구 사회와 근대를 지탱해온 합리성과 이성의 이분법에서 나아가 비서구 세계에 자리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생활 체계와 공동의 생존을 위한 예술적 실천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인지자본주의, 폭력적 알고리즘, 행정 제국주의가 드리운 미래와 겨루



아르헨티나의 세실리아 뱅글리아 작

는 지능의 무한한 형태와 삶의 양상, 공동 생존의 다양한 방식 등을 다루며 우주론적 반을 파고든다.

이러한 다층적인 전시의 맥락을 구현할 작가가 69명이 참여하며, 41점 커미션 신작이 선보여진다.

전시 장소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에 국립광주박물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광주극장 등지로 특히 메인 전시 공간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5개 전시실은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이날 공동예술감독 데프네 아야스와 나타샤 진발라도는 참여 작가 선정에 관해 "우리는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대처했던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향해 결연, 연대, 우정, 회복이라는 가치가 지닌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그 위력을 발휘하고자 한다"며 "내부인과 외부인, 합법과 불법,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해체해 마음을 확장시키고 포용적인 예술적 실천을 하는 작가들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비엔날레가 한국의 샤머니즘, 즉 '무속'의 의식 체계를 탐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집단의 트라우마와 가부장제의 폭력, 질병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여성 무속인의 역할을 돌아본다.

서울에 소재한 샤머니즘박물관과 가회민화박물관의 부적, 손으로 직접 그린 설명서, 병풍 그림, 공예품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성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는 한국 동시대 문화계의 주요 인물뿐만 아니라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시각 예술가들을 한데 모은다. 화가 민정기, 사진가 이갑철, 미술가 문경원 등의 작품이 전시관을 목격하게 채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새로운 규칙들을 염두에 두고 대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1층 전시실에는 샤머니즘박물관과 가회민화박물관의 아카이브 및 소장품과 함께 작가들의 신작 커미션이 전시된다.



베냉의 에모 데 메데이로스 작 'Kaleta SFI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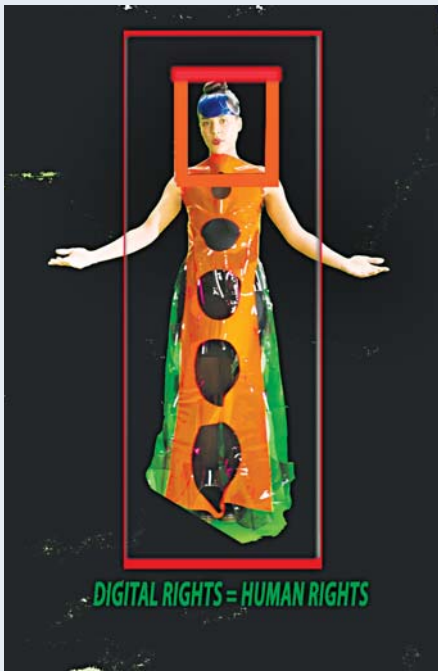
이샤흐 작 'unification'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죽음과 사후세계, 영적인 물건이 주는 보상, 육체의 한계성 등의 개념을 다룬다.

광주극장에서는 주디 라둘(Judy Radul)이 라이브 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 영화상 카메라를 통해 시각 인지의 개념과 기술적·생물학적 의미의 '이미지' 개념에 도전한다.

'라이브 오르간(Live Organ)'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탐색하며 퍼블릭 프로그램과 온라인 커미션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커미션의 경우 광주비엔날레 웹사이트와 SNS 채널에 개막 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해 전시 기간 동안 모든 시리즈를



미국의 린 허쉬만 리슨 작 'Shadowstalker'

공유할 예정이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공공프로그램 GB 토크는 지난 9월부터 개시돼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 운동의 시대적 흐름, 반복되는 억압적 정권의 망령, 오늘날 새롭게 고안된 다양한 시위 양식 등을 논의한다. 학자, 예술가, 사회운동가 및 시민 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크, 포럼 및 녹화 영상으로 구성된다.

광주비엔날레 김선정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가 팬데믹 시대, 치유의 힘을 보여줄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작품들은 연내 전시관 공사를 마치고 1월 중 설치될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동아시아 원년 문화도시 안부를 묻다

광주-취안저우-요코하마시, 영상으로 예술작품 교류

2014년 동아시아 원년 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시, 취안저우시, 요코하마시가 교류 7년째를 맞아 영상예술로 안부를 묻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 프로듀싱을 맡은 '영상 예술로 안부를 묻다' 이벤트는 코로나 19로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의를 나누기 위한 것으로, 18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도시별 홍보영상과 함께 3개 도시 문화국장들이 안부를 묻고, 도

시별 지역 특색을 살린 예술작품을 통해 공감의 폭을 넓혔다.

광주 공연은 무등산 '주상절리'를 현대무용으로 표현한 영상미가 뛰어난 작품이며, 취안저우는 전통 희곡과 군무를, 요코하마는 지난해 광주수영선수권대회에서 선보인 민속춤과 전통무용을 선보이게 된다.

원년 문화도시 공동 프로젝트는 연말까지 유튜브 채널 (youtu.be/mvh78msfr1w)을 통해 전체 21개 문화도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이연수 기자

'2020 중딩영화제' 작품 공모

시청자미디어센터, 내달 7일까지 자유 주제

시청자미디어재단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방송 분야 꿈나무 발굴을 위한 '2020 중딩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하고 참여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행사는 학교미디어교육의 사례와 트렌드를 공유하고 중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전국 유일의 중학생 영화제다. 청소년 감독으로의 데뷔는 물론 진로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청소년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작품 접수는 ▲3분 이상 20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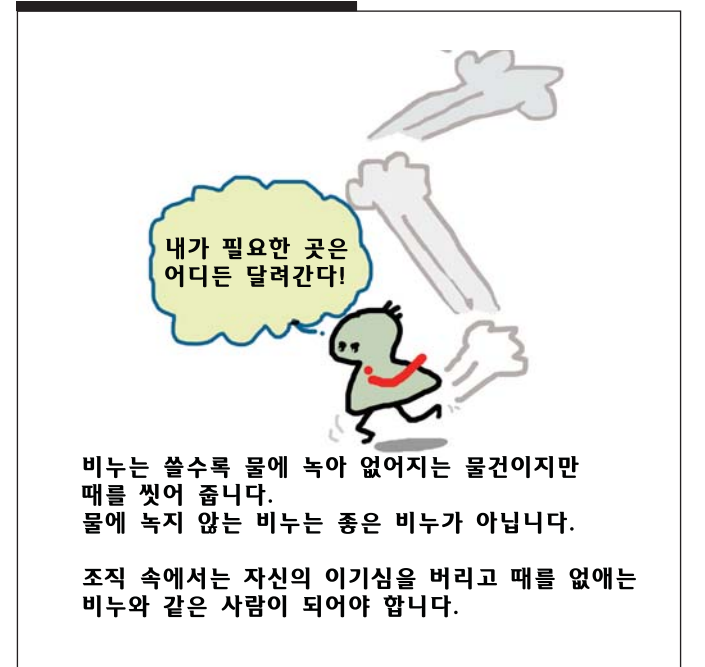
외 길이의 일반 분야 ▲30초 이상 1분 내외의 단편 분야로 구분, 자유 주제의 동영상 콘텐츠와 참가신청서를 내달 7일까지 이메일 (gjc@kcmf.or.kr)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모집된 작품의 최종 심사 결과는 12월 16일 오후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 또는 영화제 관련 기타 문의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청자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최윤규의 인물 & 상상

비누같은 사람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물건이지만 맴을 찾아 옵니다.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좋은 비누가 아닙니다.

조직 속에서는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맴을 없애는 비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량이 있는
신인작가를
발굴합니다.

신춘
문예

공모부문 및 시상 내역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상금 15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당선작 1편, 상금 200만원)

접수마감

2020년 12월 10일(목)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

보내실곳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전남매일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응모작은 신문·잡지·단행본 등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같은 작품을 다른 신춘문예 공모에 중복 응모했을 경우에는 낙선 처리됨.
- 봉투 겉면에 '신춘문예 ○○부문 응모작' 이라 쓰고, 작품 편수를 반드시 명기.
- 원고 접수시 맨 뒷장에 성명(필명일 경우 본명 기재), 전화번호, 주소 명기.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팩스나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문의

062) 720-1071~2

제2회 전남매일 신춘문예 '골드문학상' 공모

주최 : M 전남매일
후원 : (재) 골드클래스문화재단